

‘무주산골영화제’ 올해도 통했다!

3만여명 방문 · 경제적 파급효과 288억7000여만원... 산골영화제만의 매력 · 정체성 유지 호평

무주군은 12일 자체 보고회를 갖고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결과를 공유했다.

(재)무주산골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됐던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18개국 86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3만여 명(경제적 파급효과 288억 7천여만 원)이 방문해 영화 관람을 비롯한 관객과의 대화, 산골토크, 공연이벤트, 넥스트 시네아스트 전시 상영 등 관객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12년간 5일로 유지해오던 △행사 기간을 3일로 축소하고 개막식 취소, 3일간 종일 프로그램 운영, 키즈 스테이지를 비롯한 무료 야외 프로그램 유지하면서 호응을 얻었다.

또한 △〈디렉터즈 포커스〉와 〈넥스트 시네아스트〉 신설, 〈정기용, 감응의 건축: (옛)서창향토박물관〉 완성 및 월드 프리미어 상영 등 발굴과 (재)발견을 목표로 무주만의 프로그램 정체성 유지 및 강화에 힘써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관객 만족도 설문 조사(2025. 6. 6~8. 무주에 체문화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객 1,127명 대상)에서는 무주와 전북을 제외한 외지 관광객 비율은 85.5%로 나타났으며, 영화와 관객 이벤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 전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82%였으며 가장 만족한 영화 프로그램은 등나무운동장 야외 상영(54%), 덕유산 대집회장 야외 상영(30%), 토끼 시네마·산골 토크(14%), 넥스트 액터(13%) 순으로 집계됐다.

관객 이벤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85%



지난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됐던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18개국 86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3만여 명(경제적 파급효과 288억 7천여만 원)이 방문했다. 사진은 등나무운동장 열린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 상영 모습.

로 분석된 가운데 음악공연이 가장 만족(70%)한 프로그램으로 꼽혔으며 브랜드 팝업(39%), 산골책방(30%)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관객의 85%가 여성, 주요 연령층은 20(29%)대, 30(54%)대, 직장인이 76%를 차지했다. 관객 거주지역은 서울이 30%, 경기 13%, 전북 11%, 무주군 4% 순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이 올해 처음 무주를 방문했다고 밝혔으며 전체 관객의 86%가 영화제 이후 무주를 재방문할 의사를 밝혀 지역 호감도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무주산골영화제에 처음 참석한 관람객은 58%, 2회 이상 참석은 42%이며 43%가 영화 관람을 위해, 35%가 공연 등 이벤트를 즐기기 위해 영화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2인 동반이 57%, 3인 이상 동반 35%, 1인 방문객 8%였으며 영화제 참석을 위해 77%가 1

박 이상(1박 2일 35%, 2박 3일 37%, 3박 4일 5%) 무주에서 머물렀다. 영화제 기간 소요 예산은 방문자들의 41%가 10~20만 원, 23%가 10만 원 미만, 20%가 20~30만 원, 14%가 30만 원 이상 계획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장)는 “영화제 일수와 일부 프로그램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산골 무주를 직접 찾아와 여전한 기대와 사랑을 보내주셨던 관람객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숙박 시설 부족과 대중교통 불편 등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앞으로 꼭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골영화제가 가지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속성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10)

10억!

- 오 상 근 -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박청수도 쉽게 당겨오지 않는다. “전화를 준 걸 보니, 내가 필요하긴 필요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쪽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왜 사람을 죽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목소리를 들어서 알겠지만 나는 나이를 좀 먹었소. 그리고 마음이 있다면 강용대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있소. 어쩡소? 생각이 있소?’

“그쪽은, 어디에 사시오?”

‘고창에 살고 있소. 나이가 일흔이요.’

고창에 살고 있고 나이가 칠십이다? 고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원수진 일이 있어 사람을 죽여 달라는 것인가. 나이가 칠십이나 된 늙은이가 누구에게 원한이 있던 말인가. 혹시 치매?

“나이가 일흔이나 된 양반이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건 묻지 마시오. 강동식 씨는 사람만 죽여주면 되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강용대의 인적사항이나 알려주시오. 알아보고 결정하겠소.”

박청수는 강용대가 살고 있는 주소와 나이, 얼굴 생김새와 키, 몸무게를 대략적으로 말해줬다.

강용대의 나이는 무려 85세였다. 가만히 놓아둬도 내일모레면 세상을 하직할 노인을 거금 10억 원을 바쳐가면서까지 죽이려 하는 것일까.

세상 이치에 따라 순리에 맞게 자연사하는 걸 막고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어놓아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원한이 크다는 것인가.

박청수도 나이가 70이라고 했다. 85세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도 살날이 그리 넉넉히 남아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승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끼리 무슨 원한이 그리 깊은 것일까.

휴우……. 동식은 한숨을 내쉬어 생각이 옆길로 새려는 걸 막았다. 남이야 풍으로 메주를 쏘든 뭐를 하든 무슨 상관인가. 10억을 준다고 하지 않는가.

10억!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지금껏 건달로 살아왔지만 사람을 죽인 일은 없었다. 물론 지난 번 마약 건 때처럼 의도치 않게 죽여버린 일은 있었지만. 동식 나이 정도 되면 직접 연장을 들고 작업을 하러 다니지는 않는다.

한 때 깃발 날리고 다닐 때는 연장도 만들고 직접 썬 일도 있다. 연장을 쓴다고는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막지하게 사용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위협이 되고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도록 하는 데까지만 연장을 쓰는 거지, 아예 목사발을 만들기 위해 연장을 쓰지는 않는다.

사시미 칼도 날 것 그대로 쓰는 게 아니다. 칼날 부위의 9할 가량을 봉대나 테이프로 감는다. 수서도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피를 흘려 겁을 먹은 정도까지만 찌른다.

찌르는 부위도 종아리나 허벅지, 팔뚝 정도로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동생들에게 교육한다. 복부를 수서버리면 저승으로 보내 버릴 수 있고 덩달아서 수신 놔도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튼 사람을 북망산을 넘어가도록 떠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물론 사람을 쓴다고는 하지만, 일을 하는 놈이 내 마음 같을까.

손발이 정말 잘 맞아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빠듯하면 10억 먹으려다가 10억년을 나라에서 마련해준 수도처에서 사리가 나올 때까지 묵언정진 해야 할 판이다.

서른다섯 해 인생살이 중 반토막 이상은 법무부 밥을 먹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범죄단체’에 이름을 올려놓으면 다중이 모여 있는 터미널 대합실에서 방귀만 소리 내 귀어도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발간위원회’ 발족

전북여성가족재단, 지역여성전문가 12명 위촉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발간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발간위원회’를 발족했다.

12일 재단에 따르면 이날 발간위원회를 구성, 지역여성전문가 12명을 위촉했다. 해당 위원회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 자문에 참여하며 향후 5년간 전북여성사 주제별 저서 발간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함한희 (사)무형문화유산연구원 원장, 박경 한국여성사학회 연구이사 등 지역여성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학, 여성학, 역사학자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재단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를 ‘전북에서 출생, 성장, 활동, 사망 등 생애를 보낸 여성의 삶 또는 전북사회의 성별

규범과 관련해 유의미한 사건, 인물, 문화 등에 대한 지역 역사로 정립했으며, 기존 연구 및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결과 217개 주제, 96명의 인물을 발굴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발간위원회’는 중장기 연구 자문, 향후 발간 순서와 주제 확정에 참여하게 된다. 발간 주제는 전북여성농민, 여성정책, 여성인권 등으로 올 연말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발간 순서와 주제를 확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는 여성역

사문화 콘텐츠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 여성사 전시 공간 및 탐방로 조성 등 지역 역사 문화 자원을 발굴하는 의의가 크다.

전정희 위원장은 “전북여성사 연구는 여성의 주체가 되고 전북여성의 서사가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라며 “오래 발족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발간을 진행해 미래 세대의 평등한 역사 인식에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